

30년을 대한토목학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우리 학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제 54대 회장 후보

# 김철영



엣그제 학회에 입회한 듯한데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각종 위원회 막내로 시작해서 학회지 간사장(2005), 토목의날 준비위원장(2010), 정보기술위원장(2011), 기획위원장(2012), 글로벌센터 간사(2013), 대한토목학회창립기념 표지석 추진위원장(2015), 기획부회장(2015), 학술부회장(2016), 선거관리위원장(2016), 중장기발전위원장(2017), 구조위원장(2017~2018), 토목공학개론 대표저자(2014~2018), 한반도건설비전위원장(2019), 70주년 준비위원회 총괄간사(2020~현재) 등 그동안 수십여 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 임원을 맡으며 학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였고, 덕분에 훌륭한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학회와 함께 해온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알찬 밑거름이 되었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학회와 토목분야를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학회의 나이가 곧 일흔이 됩니다. 우리 학회가 청년기였던 전후 어려운 시기 토목공학을 일으켜 세우시고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 마련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공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건설 환경 및 사회 인식과 함께 국내 토목분야는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저와 더불어 우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국내 및 해외 건설시장의 축소, 선진 엔지니어링 대비 기술적·제도적·문화적 한계, 토목공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여러 전문학회의 약진에 따른 우리 학회의 역할 축소, 젊은 엔지니어들의 학회 참여 저조 등 반평생 학회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54대 학회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 학회와 토목분야는 청년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토목분야 4차 산업기술의 initiative를 우리 학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선진화, 엔지니어 양성, 학회 운영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아래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미래의 토목을 열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건설 분야 Initiative 확보 (AI, Big Data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및 유지관리)
-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학회 운영 플랫폼을 선구축하여 유관 학회 및 단체와 공유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공통의 테마로 한 전문 분야 간 선도적 융합 및 젊은 엔지니어 참여 도모
- 언택트 시대 대응형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영상클립 등 시각화 교육 자료 개발)

## ■ 미래형 엔지니어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회 진출 후 실용성 있는 교과과정 모델 개발 및 건설분야 맞춤형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런칭
- 공학교육 인증제도 개선 및 실용화를 위한 학회의 주도적 참여
- 건설이 주도하는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재 풀 조사 및 학계/산업계 연결(Matchmaking) 서비스 제공
- 기술자(기사 및 기술사) 경력 관리 제도의 개선: 대학 및 학회 교육 기능과의 연계

## ■ 학회의 역할 강화 및 적극적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 사회적 현안 대응 강화 - 사회현안신속대응팀 운영 & KSCE Smart Weekly를 통한 사회적 이슈 홍보 및 분석 강화
- Vision 2050 구현 - 법·제도 개선, 교육·인증사업 활성화, 홍보 강화
- 지회참여 강화 - 학회 모든 행사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유관학회와의 지속가능한 win-win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학회의 활동 범위를 국토·도시·환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

미래를 위한 변화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공약도 앞선 회장님들께서 마련하신 기틀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학회의 Vision 2050과 KSCE Smart Weekly 등은 저의 공약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차기회장-현회장-직전회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빈틈없이 준비하여, 모든 공약을 성실히 실행하고, 그 성과를 확인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70년 전 우리 학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도전이 있었습니다. 새나라의 건설과 전쟁복구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선배님들은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시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당면한 토목분야의 문제에서 보듯 현재의 우리도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나아갈 것이냐 이대로 후퇴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위기는 기회이듯,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밀알이 되어 우리 학회가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4대 회장 후보 김철영

